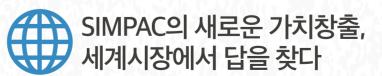


심팩스토리

SIMPAC STORY 2018 SUMMER VOL 43









SIMPAC STORY 2018년 SUMMER

통권 43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8년 9월 11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이웅기 대리

02-3780-4923 wklee@simpac.co.kr

김유림 사원

032-590-2041

yurkim@simpac.co.kr

(주)SIMPAC 프레스BU 김다희 사원

032-510-0040 daheekim@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민혜림 사원

032-590-8812 hrmin@simpac.co.kr

(주)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SPECIAL THEME

04 THEME ESSAY

알아 두면 유용한 기계산업 최신 동향

08 THEME STORY

우직한 걸음으로 성공을 찍어 내다





SIMPAC IN

10 SIMPAC NEWS SIMPAC그룹 소식

14 현장을 가다

패기는 뜨겁게 에너지는 넘치게

22 오늘은 제가 쏩니다

맛난 간식 사 왔으니 제대로 한 번 뭉칩시다!

26 SIMPAC SURVEY

새로운 삶의 기준, 당신의 워라밸은?

28 기획칼럼

#3 슬기로운 직장생활

SIMPAC 人

30 워라밸 프로젝트

3탄 The Summer Holidays

34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

36 편지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마음

38 사진으로 말해요

PHOTO DIARY

39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THEME ESSAY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알아 두면 유용한 기계산업 최신 동향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미래를 예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세계 산업계의 불규칙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이는 기계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지난 몇 년을 꼼꼼히 반추하는 한편, 현재의 업계 트렌드를 예민하게 관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기계산업 최신 동향에









반등에 성공한 기계산업

지난 2016년, 국내 기계산업은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힘 겨운 시간을 보냈다. 국내 경기 침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유로존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이듬해 기계산업 경기는 반등의 기회를 맞았다.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 호조, 신흥국 성장에 의한 설비투자 등을 통해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기계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함께 증가하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기계산업 생산액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연초 전망치인 104.2조 원보다약 1%가량 오른105.2조 원을 기록, 지난 몇 년간의 감소세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

기계산업 수출 증가를 이끈 일등공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하며 극적인 반전을 연출했다. 더불어 기타 기계·반도체 장비·산업기계도 반등에 성공, 각각 30.8% · 24.1% · 11.6% 증가했다. 이를 모두 합친 기계산업 수출 액은 562억 달러에 이른다. 수출 호조와 함께 반도체 등 주요 수요 산업의 호황으로 내수도 덩달아 회복세로 돌아섰다. 주요 수요 제조업의 일반기계 가동률지수가 90 내외로 치솟았고, 설비투자 지수도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2017년도 기계산업은 '맑음'

업종별로 살펴보면 작년의 기계산업 호조세가 보다 뚜렷하게 보인다. 공작기계는 수주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각각 13.8% · 12.6%로 동반 성장했다. 플랜트의 경우 3분기 누계액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여 반등에 성공했으나, 그 절대량 부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건설기계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157% 오르는 등 수출 주도의 증가세를 보였고, 반도체 장비는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시장이 확대됐고 실적도 좋아졌다. 디스플레이 장비도 국내 OLED 장비 투자 및 중국의 11세대 LCD 장비 투자에 힘입어 실적 증가를 이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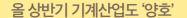
이에 따라 한국기계연구원은 올 2월 초에 발표한 기계산업 2017년 성과와 2018년 전망,을 통해 2017년도의 성장세가 올해에도 이 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3분기부터 본격화된 실적 회복 및 선진국 경기 회복, 수요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 모두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8년 기계산업 생산액은 작년보다 2%가량 증가한 107조 원대 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계산업은 국제 경기 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18년 상반 기에는 중국·미국·EU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되는 양 상을 보였고, 국내 기계산업도 전반적으로 소폭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 상반기 기계산업 수출은 수송기계의 수출 감소로 1.1% 소폭 내려앉았으나, 일반기계의 수출은 중국의 건설경기 호황과 선진 국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7.5%의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 또한 선박을 제외한 기계산업의 생산은 작년 생산 확 대에 따른 여파와 내수 정체를 수출로 보전, 작년 상반기 대비 1.5% 상승했다. 한편 내수는 작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 비 투자 확대와 자동차·조선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실적 부진에 따 른 투자 위축으로 전년 동기와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각 수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지면, 선박을 제외한 상반기 5대 기 계산업(일반기계·조립급속·전기기계·정밀기계·수송기계)의 생 산액은 247.5조 원으로 1.5% 증가했다. 수출액은 904억 달러로 1.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611.3억 달러로 9% 높이졌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는 292,7억 달러다. 이 중 일반기계 생산액은 53.7조 원, 수출액은 265.9억 달러, 수입액은 218.6억 달러다. 전 년 대비 각각 2.3%·7.5%·1.6% 증<mark>가한 수치이며, 무역수지 흑자</mark> 는 47.3억 달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올 상반기 기계산업은 대체



지속적 성장세, 하반기에도 이어질 듯

올 하반기 기계산업도 대체로 상반기의 상승 기조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정부의 개발 투자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 업 호조에 따른 건설 및 설비 투자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기계산업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 그러나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국제 기계 수요 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될 위협적 요소다.

하반기 기계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로 기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대중국 일반기계 수출은 지난해 113.6억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다르다. 상반기에만 77.2억 달러를 달성, 작년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현재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작기계 등 전반적인 기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1.5조 달러 규모의 인프 라 투자 관련 연방정부기금 집행·제도운영 등의 계획을 발표했는 데, 이 같은 SOC 투자 기조가 기계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 망된다.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부가 정책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들어가는 기계 수요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호응하면서 공장 및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기아자동차는 내년 완공 예정인 13억 달러 규모의 현지공장을 짓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등 16개 기업은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13.7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인도 수출 규모가 상당히 커져, 올 상반기에만 8.8억 달러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재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당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이후의 기계산업 성적표가 기대되는이유다.





SPECIAL THEME / 우직한 걸음으로 성공을 찍어내다

THEME STORY

우직한 걸음으로 성공을 찍어 내다

반세기 동안 프레스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적절한 설비 증설로** 덩치와 내실을 함께 키웠고, 대한민국 최고의 프레스 제조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더불어 과감하게 해외로 진출, 독일·일본 등 글로벌 선진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유의 우직함으로 성공을 찍어 내고 있는 SIMPAC 프레스BU의 이야기다.



동성개발공업에서 쌍용정공으로, 그리고 SIMPAC으로, 1973 년 문을 연 SIMPAC 프레스BU는 46년 동안 여러 이름을 겪으 며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프레스 전문 제조사로서의 견고한 지위다. 명장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한 우물을 50년 동안 파는 경우가 흔치않은데,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룬 기업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로지 프레스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는 사실이 자못 놀랍다. 당연히 그 내공이 남다를 수밖에없다.

제품 라인업부터가 남다르다. SIMPAC 프레스BU는 작은 전 자부품을 생산하는 소형 프레스부터 자동차 도어 등 차체를 생산하는 대형 프레스까지, '프레스'라 이름 붙은 제품은 대부분 제조 및 납품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기계식 프레스를 넘어, 링크 기구를 이용한 서보 프레스를 지난 2006년에 개발·납품했다. 2013년에는 세원정공 아메리카와 일본 오기하라에 2,500 톤급 대형 트랜스퍼 프레스를 개발·납품해 높은 기술력을 스스로 증명해 내기도 했다.

SIMPAC 프레스BU는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프레스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품질 경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왔다. 1995년 국내 프레스 브랜드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

경영체제인 ISO 9001(산업용 프레스의 설계·생산·설치·A/S 부문) 인증과 CE-Mark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도 여럿 거뒀다. 그러자 전 세계가 SIMPAC 프레스BU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09년 포브스(Forbes)지의 '아시아 200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가드너(Gartner)사가 '세계공작기계 매출 100대 기업' 리스트에 SIMPAC 프레스사업부문의 이름을 올렸다. SIMPAC 프레스BU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프레스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 가다

기술 개발이 최우선 과제임을 일찍이 깨달은 SIMPAC 프레스 BU는 1991년 SIMPAC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40여 명의 고급 연구진이 선진 기술 개발 및 제품 국산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민국 프레스의 산실이다.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자동차 및 전기, 전자 산업의 설비 증설 등 전방 산업에 대한 신규 라인 증설과 노후 기계 교체에 따른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설공장을 가동하는 등 수주 잔고및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방위적 행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 45% 이상의 독보적인 지배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레스 시장을 제패한 SIMPAC 프레스BU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멕시코와 미국에, 2017년에는 독일에 SIMPAC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터키, 태국과 체코에 해외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했다. 주요 시장에서의 집중적인 영업 활동과 신속한 시장 대응 및 A/S가 이들의 주된 임무. 하지만 SIMPAC유럽은 다른 법인이나 사무소와 달리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선진 프레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 SIMPAC 프레스BU가 기술 개발에 대한 생각과 열정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해외에서 SIMPAC 프레스BU의 위상은 상당하다. 2014년 생산한 프레스의 50% 이상을 해외에 설치했고, 전체 매출액의 40%가량을 해외서 꾸준히 가져온다. 요즘 가장 기대가 높은 해외 법인은 바로 SIMPAC America.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중국 매출의 40분의 1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진행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더 크다. 또한 미국 경제 호조세와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한 현지 공장 증설로 인해 최근 수주가 가장 활발하게이뤄지고 있다.

해외 고객사들은 SIMPAC 프레스BU의 발 빠른 법인 및 사무소 설립에 커다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외주 의존률이 낮아 그만큼 만족스러운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소기업 해외 진출의 올바른 선례를 SIMPAC 프레스BU가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다.

'50년 몰입'으로 새로움에 도전하다

아무리 탄탄한 실력을 쌓아 온 SIMPAC 프레스BU일지라도 최근 요동치는 국제 정세만큼은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선진국의 경기 호조와 개발도상국의 SOC(사회간접자본) 및 설비 투자로 기계산업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단계는 아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멕시코 트럼프'라 불리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이에 따른 NAFTA(나프타) 재협상과 미국-멕시코 간의 관계 악화 및 무역 미찰 가능성 증가 등이예상된다. 주요 진출국 중 하나인 터키의 리라 환율폭락 등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이슈도 생겼다. SIMPAC 프레스BU는이 같은 움직임에 수출길이 타격받지

이슈도 생겼다. SIMPAC 프레스BU는 이 같은 움직임에 수출길이 타격받지 않도록 해외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한편 SIMPAC 프레스BU는 세계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IT업으로 옮겨가는 현 시점, 중국·동남아 국가들의 저가 전략에 대한 수주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존 프레임 시장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프레임 시장을 개착· 진입해야 한다고 판단, 선진사 기술 인력을 영입하는 동시에 유럽 법인을 설립해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공장 자동화 흐름에 맞춰 자동화 기술 및 관련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쓰는 중이다.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기 위한 전사적 접촉 및 노력은 기본, 지난 4월 SIMPAC이 SIMPAC Metal을 흡수 합병하는 등 기업 경영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프레스 개발 및 제조에만 매달려 온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기술력·경험·노하우는 국내 어떤 기업보다도 풍부하다. SIMPAC 프레스BU는 이 같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활동 영역을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프레스 시장으로 진출할 만반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 어떤 분야든 50년 가까이 켜켜이 쌓아 온 몰입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SIMPAC 프레스BU가 'GLOBAL PRESS SUPPLIER'로 거듭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가장 큰 이유다.



SIMPAC NEWS

2018 SUMMER





2018 SIMPAC 사외 소양교육 실시

SIMPAC 프레스BU는 2018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양평 현 대블룸비스타에서 상반기 SIMPAC 신입시원 사외 소양교육이 실시되 었다. 이번 교육에는 SIMPAC 프레스BU 26명, SIMPAC 메탈BU 6명, SIMPAC홀딩스 3명(ENG BU 포함) 총 35명의 17년도 입사자 및 18년 도 상반기 신입사원이 참여하였다.

금번 교육에서는 조직의 이해와 더불어 공동체 의식 및 조직원 팀워크 강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셀프리더십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 히, 소양교육 둘째 날에는 심웅섭 부사장이 방문하여 신입사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당부를 전하며 진솔한 대화 및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입사원 주제발표를 통하여 팀원 간의 협동심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의 기회가 되었으며, 각 부서장이 참석하여 현업 선배로서 경험 과 노하우를 전달하며 신입입사자들의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사외 소양교육에 참여한 신입사원 송준혁(남, 25세, 경영지원1팀) 씨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불안감이 많았는데 신입시원 사외 소양교육 을 통해 직장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고 미래 목표와 비전을 수립 할 수 있게 돼 직장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앞 으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SIMPAC 메탈BU 포항생산본부



포항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참가

지난 7월 7일, 제22기 포항시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가 양덕 스포츠파 크에서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세번째 참가한 우리회사 대표팀은 지난 대회 첫 승을 기록하며, 이번 대회에는 16강을 목표로 평소 업무를 마치 거나 휴무일을 활용하여 팀워크를 쌓고. 친선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향 상시키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바라던 16 강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함께 땀 흘리고 웃을 수 있는 시간으로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회였다. 내년에는 올 해 달성하지 못했던 16강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지는 이야기로 마무리하였 다. 또한 회사차원에서도 선수들의 기량 항상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





전기로 1,2호기 안전기원제 실시

SIMPAC 메탈BU 포항생산본부는 2018년 8월 15일, 18일에 포항1공장 전 기로 2호기 및 1호기 안전기원제가 진행되었다. 유난히도 더웠던 이번 여 름 대략 두 달 동안 전기로 1,2호기의 개보수가 있었다. 섭씨 38도에 육박 하는 날씨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전기로를 식히고, 내화물을 철거하고, 바 람 한 점 없는 전기로 내에서 내화물을 다시 쌓고, 사람이 들기도 버거운 무거운 패스트를 옮겨가며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특 히 좁은 설비들 사이에서 두꺼운 용접장갑과 답답한 안면보호구를 착용하 고 용접불꽃을 미주한 설비팀 직원들의 노고도 대단했다.

직원들의 소중한 땀 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예정보다 빨리 전기로 1,2호기 의 개보수가 완료되었다. 미침내 8월 15일, 전기로 2호기에도 다시 불을 찾았다. 그리고 사흘 뒤 전기로 1호기까지 화입하여 현재 포항1공장의 전 기로 4기 모두 시뻘건 용탕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로 1,2호기와 안전한 조업과 갖은 노고가 최고의 품질의 제품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안 전기원제를 지냈다. 이날 행시를 주최한 박승배 이시는 "지난 두 달, 기록 적인 폭염 속에서도 휴가도 잊은 채 불철주야 노력해준 직원 여러분 덕에 예정보다 빨리 화입 할 수 있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라는 인사말을 전했다. 안전기원제를 무사히 마치고 열흘 뒤, 약 두 달 만 에 전기로 1호기에서 뜨거운 용탕이 터져 나왔을 때, 비로소 포항1공장 임 · 직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말복맞이 복달임 음식 나눔활동 펼쳐

심봉사 회원 및 가족들은 지난 8월 14일, 말복을 맞아 유난히 더웠던 올여 름을 건강하게 나시라는 의미에서 복달임 음식으로 영양가 가득한 삼계탕 200인분과 시원한 수박 30통을 전달하였다.

장기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유락원과 상락원을 시작으로 청림에 위치 한 장애우 주간보호센터인 우함주간보호센터, 두호동에 위치한 어린이 보 호기관인 이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준비한 복달임 음식을 전달하였다. 평소 5월 가정의 달 문화봉사를 통해 얼굴이 익은 상락원의 한 할머니께 서는 심봉사 회장을 반갑게 맞으면서 "이번에는 왜 사물놀이를 안하느 냐?"라며 불만 아닌 불만을 이야기하며 지난 행사의 추억을 함께 나눴다 그리고 상락원 원장은 "무더운 여름 불앞에서 음식 하는 직원들까지 배려 해 조리된 삼계탕을 지원해줘 드시는 어른들과 대접하는 직원들 모두가 고미워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앞으로도 우리회사는 이웃에게 따뜻 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0 SIMPAC STORY **11** 2018 SUMMER

SIMPAC NEWS

2018 SUMMER



SIMPAC 메탈BU 당진생산본부



제1회 당진공장배 스크린야구 경진대회 실시

2018년 펀펀(Fun-Fun) 조직 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스크린야구 경진대 회를 실시한다. 현장 교대조 및 상주팀으로 총 6개 팀으로 만들어 총 6 경기 실시하며,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여름철 더운 현장에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을 주인공 으로 하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시원한 실내 스크린야구장에서 진행 된다. 또한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 정이며, 최고 타격왕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5만 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현재 예선전 리그를 끝내고 결승전 리그가 시작되었다. 결승리그는 교 대 A, B, D조 3개팀이 올라가 있으며, 9월 중 우승팀이 결정될 예정이 다. 직원들을 퇴근 후 모여 자체적으로 연습을 하는 등 스크린야구 경진 대회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스크린야구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소통활성화를 위한 업무 외 친목활동을 지속 전개 해나갈 예정이다.



SIMPAC 메탈BU 당진생산본부 '다사모(관리직 팀원 모임)'는 문화행사 의 일환으로 지난 7월 4일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수상작 '아비'를 관람하였다. 이날 행사는 타 지역에 비해 문화생활 을 즐기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증대되기를 바라 며 기획되었다.

관람한 공연 '아비'는 180억 유산문제로 빚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인 간의 추악한 탐욕을 그린 작품으로 물질만능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에게 기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일깨우며 호평을 받았다. 우리회사 직원 들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계기가 되는 기회였기를 바란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기념 촬영 으로 마무리되었다.









함사세 봉사단, 지역 내 독거가구 방문

SIMPAC 메탈BU 당진생산본부 '함사세' 봉사 단은 7월 7일 지역 내 독거가구를 방문하여 주 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 앞서 당진시 지원봉사센터 팀장 과 이슬기 시원이 거주 주택을 먼저 방문하여 집 상태 확인 및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다.

준비를 마친 후, 함사세 봉사단은 독거 어르신 김진숙 씨 거주지를 방문하여 곳곳에 쌓인 폐 기물을 제거하고, 실내 청소 및 집 앞 마당 정 리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진숙 할머니께서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였으며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봉사단원들은 감동을 받았다. 청소 후 할머니 께 쌀 및 다과를 전달하고 따뜻한 말벗이 되어 드리며 이날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함사세는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제작한 에코백을 기부하는 봉사활동 펼쳐

지난 8월 25일, 2018년 제3회 당진공장 함사세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당진시 자 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 '핸즈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핸즈온 프로그램은 재능기부 형태의 활동 으로 관내 어려운 세대 및 제3세계 등에 전달할 지원물품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참여한 직원들은 직접 디자인하고 원하는 도안대로 에코백을 제작하여, 저소득 계층에 전 달될 예정이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꾸민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이 큰 경험이 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히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 다. 또한, 참여한 직원들은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 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회사는 참여형 사회 공헌활동을 지향함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능기 부와 같은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12 SIMPAC STORY 13 2018 SUMMER













패기는 뜨겁게 에너지는 넘치게

신입사원 연수, 3일간의 기록

시작은 늘 그렇듯 서툴다. 어색함과 주뼛거림이 운명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취업준비생이라는 알을 깨고 'SIMPAC'이라는 세계로 진입한 29명의 스타터. 생각은 긍정적으로 행동은 진취적으로, 숨은 에너지를 전부 뿜어냈다. 심팩을 이끌어 갈 가능성을 보여준 신입사원 연수. 그 뜨거웠던 현장을 복기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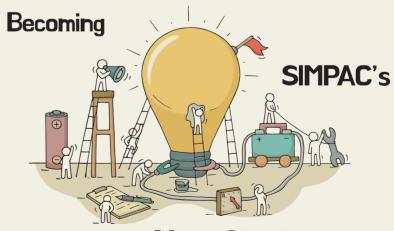
DAY 1. 너와 나를 알아가는 시간

2018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심팩 신입사원 사외 소양 교육'이 열렸다. 2박 3일간의 신입사원 연수에는 2017년 수시 입사자와 2018년 공채 입사자, 총 29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의 목표는 신입사원들이 하나의 공동체이자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 동료와의 거리를 좁히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들의 길 찾기가 시작됐다.

마치 동물원처럼 조원들의 장점이 다양하다는 뜻을 담은 주토피아 팀을 필두로 6개 조가 만들어졌다. '쩌러 주자!'라는 요즘다운 구호가 등장했고, '정직한 태도로 타인에게 애정을 갖고 행동하겠다.'는 멋들어진 각오도 보였다. 입사 시기도 소속 회사도 다르지만, 심팩인 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서로를 향한 눈길이 편안해졌다.

준비운동이 끝났다면 본격적인 탐색에 들어서는 게 인지상정.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을 이해하고 핵심가치를 익히는 프로그램이 뒤를 이었다. 조직의 정의와 조직 생활에 대한 마음가짐, 경영이념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 사회생활 새내기에게 피와 살이 되어줄 강연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태도와 사고방식에 관한 조언은 모두를 숨죽이게 했다. 가치 있는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바람은 그 누구도 다르지 않았다. SIMPAC 프레스 BU 김성광 사원의 이야기처럼.

"연수 첫 활동이 조원들의 이름에 들어간 자음과 모음으로 조별 다짐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고심 끝에 '고정관념을 깨고 적극적 자세와 긍정적 마음으로 도전해 감동하게 하겠다.'는 다 짐을 세웠는데요. 이 다짐은 우리 조뿐 아니라, 동기 전체의 각오였을 겁니다."



New Starters



















DAY 2.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법

조직의 흥망은 소통에 있다. 굳이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소통이 발휘하는 힘을 모르는 이는 없을 터. 이번 연수에서도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화두였다. 강 연에서 제시된 핵심내용은 네 가지. 소통하는 조직이 만드는 즐거운 회사, 조직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해, 조직 커뮤니케이션 기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 한 커뮤니케이션 포인트 리뷰가 그것이다.

특히, 조직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는 구체적인 예시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명확하지 않은 조직 안에서의 대화 예절과 어렵기 그지없는 업무 관련 질문과 요 청, 거절 등을 풀어내는 법을 일러주었다. 아직은 서툰 신입사원에게 이보다 유용 한 정보가 있을까.

배움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는 일만큼 아까운 건 없다. 배움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더 큰 가치를 얻는다. 그래서 조별로 이뤄진 커뮤니케이션 실습은 꽤 효과적이었 다. 워크숍 장소 예약에 관한 역할극으로 배려, 간결, 명확, 정중의 원칙에 따른 정 확한 의사전달을 연습했다.

'심팩인으로서의 우리는'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항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공감, 양보, 이해, 표현방식, 경청, 미소, 칭찬, 존중, 긍정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소통에 임하는 자세. 각 조가 내놓은 의견은 닮아있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했다. 연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제발표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여온 신입사원들. 그들에게 주어진 주제는 심팩의 장기발전을 위 한 신성장 동력과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증대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업무 틈 틈이 준비한 자료를 조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SIMPAC 메탈BU 오명섭 사원은 서로 근무 지역이 달라 더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도 성실히 발표를 준비한 덕분에 6개 조가 함께 문제해결 능력을 증명해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되기 위해 심팩이 보완해야 할점'을 발표 주제로 삼았는데요, 조원들이 서울, 당진, 포항 곳곳에 있어서 발표 준비가 녹록지 않았어요. 역할분담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발표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신입시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스마트 레이스는, 가장 열렬한 호응을 끌어냈다. 스마트 레이스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역별 QR 코드에 접속, 조원들과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얻은 답을 입력하는 활동. 놀이로 긴장감을 해소하고 팀워크도 쌓을 수 있었으니, 일거양득이란 이런 게 아닐지.

"심팩에 관한 문제부터 함께 점프하며 사진 찍기, 휴지를 이용한 단체 줄넘기 등 어렵고 재미있는 미션이 많았습니다. 그중 휴지로 단체 줄넘기하기가 단연 최고였죠. 휴지를 꼬아 줄을 만드는 아이디어부터 동시에 줄을 넘기 위해 뛰고 또 뛰면서 흘린 땀까지.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SIMPAC 프레스BU 정민기 사원은 스마트 레이스 덕분에 좋은 생각은 단합과 집중에서 비롯됨을 느꼈다며, 가장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DAY 3. 나답게 우리답게 내딛는 걸음

앞으로의 다짐이 적힌 종이비행기가 동시에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29개의 가슴 속에는 어떤 불꽃이 피어올랐을까. 연수 마지막 프로그램인 셀프 리더십을 통해, 삶의 주도자로서 성장하기 위한 다짐을 종이에 실어 보낸 신입시원들. '스스로'에 관한 강연이 내일을 그려보는 계기가 됐다.

시실 신입시원처럼 주변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자리에 있을 때면 스스로라는 말만큼 어려운 건 없다. 롤 모델이라는 단어에 함몰돼 상대를 흉내 내거나, 멘토라는 단어에 빠져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는 셀프 리더십은 흔치 않은 기회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막 사회생활에 발을 디뎠다면 더욱.

"4년 동안 신입사원 사외 소양교육을 진행하면서 매번 느낀 게 있어요, 작은 일에도 즐거워하고, 회사를 자랑스러워하는 후배들의 태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반성해보곤 했는데요. 이번 연수에서도 후배들의 풋풋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인재가 입사했음을 확인한 것도 뿌듯했고요."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팀 지영훈 사원은 연수에서 보여준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신입사원 모두 조직과 개인의 성<mark>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거라 덧</mark> 붙였다. 그의 말처럼 심팩인다운 자세를 갖춘 29명 스타터의 활약은 분명 믿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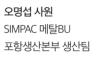




16 SIMPAC STORY 17 2018 SUMMER









정민기 사원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mark>김성광 사원</mark> SIMPAC 프레스BU 설계 2팀

<mark>박춘길 사원</mark> SIMPAC 메탈BU 영업본부 합금철영업팀

Q. 심팩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오명섭 취업문제로 힘들어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 역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심팩 공채 공고가 올라왔고, 금속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생산팀을 목표로 지원 서류 준비에 매진했죠. 짧은 면접 시간 동안 저를 다 표현하기 힘들 것 같아, 그간의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면접 당일 보여도 드렸고요. 덕분에 합격하지 않았나 합니다. 박춘길 처음부터 심팩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건 아니었어요. 교수님께 추천받은 뒤부터, 어떤 회사인지 꼼꼼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적으로 매우 탄탄한 데다가, 제가 원하는 직무라는 점에 끌려 주저 없이 지원하게 됐고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국제통상을 전공하면서, 외국어와 무역에 관련된 일을 꿈꿔왔거든요. 게다가 성격까지 외항적이라, 지금 이 자리가 저한테는 안성맞춤입니다.

정민기 저도 전역을 하고 취업준비를 하던 중에, 심팩의 공개채용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전부터 프레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접 조작도 해봤고, 기계조립에 대한 흥미도 높다 보니 이곳이다 싶더군요. 프레스 1위 기업이니 제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었죠. 무조건 입사하고 말겠다는 각오로 면접에 임한 결과, 이렇게 심팩인이 됐습니다.

Q. 신입의 필수코스이자 한 번뿐인 신입사원 연수는 어땠나요?

김성광 솔직히 말하자면 일도 바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 그다지 마음이 끌리지 않았는데요. 막상 연수에 참여해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기들과 협력해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이 짜릿했거든요. 특히, 각자 원하는 역할을 맡아 회사를 설립하는 미션이 흥미로웠어요. 조원들의 성격과 장기가 잘 반영된, 아주 멋지고 튼튼한 회사를 탄생시켰죠.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깨닫기도 했고요. 정민기 저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좋은 의도의 얘기도 좋지 않은 표정과 말투라면 좋을 수가 없다.'는 내용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상대에게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수가 아니었다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박춘길 이번 연수에서 얻은 최고의 성과는 교류가 아닐까요? 같은 신입사원이라도 한 회사에 있지 않으면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2박 3일을 함께 먹고 자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 고민은 없는지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Q. 첫 출근의 긴장감도 잠시, 업무에 익숙해지는 모습이 어떤가요?

오명섭 첫 직장에 대한 기대와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뒤섞이면서, 떨리는 출근 첫날을 보냈는데요. 어느새 업무가 손에 익으면서, 일하는 재미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적용해보고, 모르는 부분을 배워가는 과정이 모두 즐거워요. 아무래도 적성에 맞는 일을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김성광 처음에는 심팩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목표 없는 현실이 버거워졌어요. 다시 공부해볼까 하는 생각에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팀원 모두 저를 다독이며 잡아주더군요. 그 마음이 감사해서 다시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죠. 여전히 실수가 끊이지 않는 신입이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노력 중입니다. 박춘길 우리가 업무에 익숙해진다는 건, 그 뒤에 좋은 선배님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구매, 영업, 해외주재원 등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차장님께 업무 노하우를 배우고 있는데요. 덕분에 올 3분기에 진행된 대만입찰 성공에 작은 역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거래를 성공 시켰다는 성취감에 일에 대한 의지도 더욱 단단해졌고요.

정민기 저는 일이 익숙해질수록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영어는 기본이고요.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데 쓰이는 PLC에 대한 지식이나 유공압 기술을 공부해서, 더 기능적인 프레스를 세상에 내놓고 싶습니다.

Q. 심팩에서의 조직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김성광 단연 성숙한 직장인으로의 성장이죠. 입사 전까지는 오직 취업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렸지만, 지금은 더 다양한 분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요. 평소 관심이 없던 일도 업무에 도움이 되면 관심이 생기는, 변화도 경험 중입니다.

오명섭 더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기상과 취침 같은 생활방식이 달라졌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도록 삶의 루틴을 짜는 일이 나쁘지 않네요.

정민기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더는 학생으로 부모님 그늘 밑 아이로 머무르면 안 되니까요. 소비생활부터 효율성을 따지게 됐고, 귀찮아하는 버릇도 없어졌죠.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하고요. 한마디로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Q.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심팩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요?

박춘길 저는 동기에게는 인정받는 동료, 후배에게는 롤 모델이 되는 선배를 꿈꾸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함 많은 초짜지만요. 저만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본보기가 되는 자랑스러운 심팩인이 되겠습니다. 전민기 지금의 저를 평가한다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 겁니다. 선배님들 눈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모두 흡수할 준비도 돼 있고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오명섭 꾸준히 발전해가는 구성원이 되고 싶어요. 한 가지를 얻는 데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그래서 심팩에 꼭 필요한 직원이자,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김성광 저 역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심팩인을 목표 삼고 있어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채워야할 지식과 쌓아야할 실력이 적지 않지만요. 노력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을 믿어보려고요. 팀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팀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21 2018 SUMMER

맛난 간식 사 왔으니 제대로 한 번 뭉칩시다!

"다들 사무실로 모이세요." 양용진 팀장의 호출에 모든 팀원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을 누비며 영업에 몰두하기에, 실로 오랜만에 갖는 전체 회의다. 저마다 수첩을 펼쳐 놓고는 무슨 일이냐며 웅성거리는 팀원들. 바로 그 순간, 양 팀장이 벌컥 문을 열어젖힌다. 양손에는 간식이 가득이다. "그간 고생 많았어요. 맛난 간식 사 왔으니, 오늘한 번 제대로 뭉쳐 봅시다!"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윤희철 대리, 이미리 사원, 양용진 팀장, 유금홍 사원, 김용완 사원 (사진 좌측부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 팀원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99

고객사와 마주 앉는 '회사의 얼굴들'

산기영업팀은 팀명 그대로 SIMPAC인더스트리가 생산하는 산업기계를 널리 알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견적 수령부터 설비 납품까지의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자동차로 치자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요, 앞길을 비추는 헤드라이트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산기영업팀 구성원 5명의 열정과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원동력 삼아 지금껏 전국 400~500개에 달하는 거래처를 맨손으로 일궈 냈다. 크게는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요코하마타이어·브릿지스톤 등 국내외 유명 타이어 제조사에서부터 작게는 고무 제조 중소기업까지. 그 범위도 폭넓다.

"진정한 영업맨이라면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고 수주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와 설계팀 및 생산팀의 의견 차이를 유연하고 원활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들어오는 고객사의 요구도 빠르게 캐치해 전달해야 하고요, 생산된 설비가 공장에 안착하는 그 순간까지의 전과정을 문제없이 이끌어야 합니다. 설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일과 사후 처리도 일정 부분 저희의 몫이죠. 이렇듯 우리 회사를 대표해 고객사를 상대해야 하기에, 저희는 감히 산기영업팀을 'SIMPAC인더스트리의 얼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용진 팀장의 이야기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팀 소개가 끝나자 그간 겪었던 우여곡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온다. 회사 홍보물 하나 들고 '고무'라고 쓰인 공장이란 공장은 빠짐없이 문을 두드렸던 일, 부산이며 광주며 전국을 순회하며 하나둘 수주를 받던 기억이 팀원들을 하나로 엮는다. 지금은 다 좋은 추억이 된 그 나날들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고,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갈 거라고 다짐하는 산기영업팀 사람들. 그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23 2018 SUMMER





전국을 무대로, 따로 또 같이

"참, 간식 먹어야지! 다 식겠네." 그간 걸어온 길을 되짚던 양용진 팀장이 불현듯 눈을 돌린다. 다른 팀원들도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는지, 팀장의 신호를 받고 나서야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오늘의 간식은 치킨과 피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 팀원들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 아요." 막내인 이미리 사원이 웃으며 말하자, 윤희철 대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확실히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 만한 맛이네요!(웃음)"

산기영업팀은 업무 특성상 팀원 각자가 전국을 돌아다닌다. 기존 거래처를 관리하는 외중에도 신규 거래처로 영업을 다녀야 하기에 시무실에 있는 날이 거의 없다. 윤희철 대리는 부산영업소 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1년째 경남 양산에 내려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모이기도 힘들다는 팀원들. 사정이 이렇기에 오늘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때 김용완 사원이 애틋한 얼굴로 팀원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뗀다.

"일반적으로 신규 생산 설비는 공장이 쉬는 날에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가 쉬는 여름휴가 시즌, 명절, 연말연초에 더더욱 비쁩니다. 이번 여름도 납품 현장을 오가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저희들은 설비가 제대로 설치될 때까지 체크해야 마음이 편하니, 온몸이 땀에 젖도록 열심히 돌아다닌 거죠. 그렇게 여름을 보낸 뒤 한숨 돌리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역시 우리 팀장님,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김용완 사원이 타이밍을 놓칠 새라 안용진 팀장에게 닭다리 하나를 내민다. 맛나게 닭다리를 뜯은 안 팀장이 이번에는 옆에 앉은 유금홍 사원에게 피자한 조각을 건넨다. 유금홍 사원은 이미리 사원에게, 이미리 사원은 윤희철 대리에게, 그리고 윤희철 대리는 다시 김용완 사원에게 먹을거리를 전달한다. 팀원들끼리 서로를 챙기는 풍경이 참으로 살갑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다

산기영업팀은 정련설비, 압연·압출 설비 등 공장의 생산 설비를 무기로 영업에 나선다. 그러다 보니 계약 한 건 한 건의 규모는 크지만, 정기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기영업팀은 이른바 '새롭고 정기적인 먹거리'를 꾸준히 찾아 나선다. 그래야 회사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양용진 팀장과 팀원들의 생각이다.

"물론 생산 설비로 일정한 고정 물량을 만들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왔고, 어느 정도 답을 찾았습니다. 그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여러 설비에 들어가는 감속기입니다. 이를 토대로 꾸준히 고정 납품 물량을 늘려가는 가운데, 신제품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확대에 따라 자동화에 관심을 갖는 고객사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기존 설비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소기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산기영업팀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메신저로, SNS로, 메일로, 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래서인지 근 한 달 만에 얼굴을 마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색함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산기영업팀 직원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든든해져 온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들의 여정,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66

대리인 저를 부산영업소 소장으로 보내 주신 것은 그만큼 저를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오늘처럼 팀원들과 마주하면 더욱더 반갑습니다. 이 자리 만들어 주신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팀을 위해 헌신하는 팀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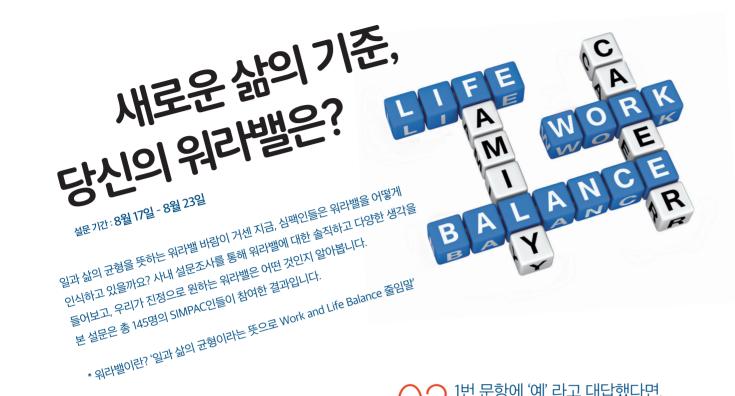


Olul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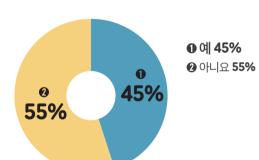
66

산기영업팀은 회사의 빛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기에 회사의 남다른 경쟁력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런 자부심을 마음속에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맡은 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막내의 모습,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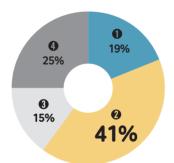
24 SIMPAC STORY 25 2018 SUMMER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실현하고 있나요?



1번 문항에 '예' 라고 대답했다면, . 귀하의 연령대는?



- 0 20대 19%
- @ 30대 41%
- **3** 40대 **15%**
- 4 50대 이상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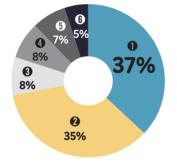
저녁 있는 삶이 보장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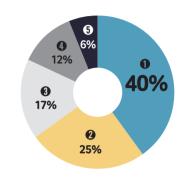
- 20% 30%
- ❶ 취미활동 30%
- ② 가족과의 시간 30%
- ❸ 운동 20%
- ♣ 친구 등 지인교류 8%
- **⑤** 기타 (여행, 수면 등) **12%**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경제적 여유 37%
- ❷ 정시퇴근 35%
- ❸ 건강유지 8%
- 4 자기계발 또는 취미생활 8%
- ♂ 근로시간 단축 7%
- ⑤기타 5%

워라밸 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일과 가정을 둘 다 지켜낼 수 있는 삶 40%
- 2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 25%
- **3** 업무 효율성 증대 **17%**
- ◆ 유연한 근무 환경과 창의적 조직 분위기 조성에 도움 12%
- **1**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6%**

워라밸을 실천하는 심팩인이 바라는 조직문화의 변화는?

- ▼ 동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사내 동호회 활성화
- ▼ 눈치보지 않는 퇴근시간
- 학습동아리, 사외강사 초청 강연 등과 같은 임직원 교육제도
- ▼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찾는 지원제도 확충
-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운영



27 2018 SUMMER

세번째이야기 직장인 슬럼프, 어떻게 극복할까?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슬럼프란 '심신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말한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어느 기간 동안 연습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의욕이나 성적이 제자리에 머무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행히 사전적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 슬럼프는 일시적인 상태이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일시적인 방황이나 의욕상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그러니 슬럼프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의욕 충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직장인의 96%가 겪는 슬럼프 슬럼프를 극복하는 다섯 가지 방법

2017년 취업포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96%가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62%는 슬럼프를 주기적으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슬럼프를 겪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53%만이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답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2.3개월이었다.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고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1. 뭐니뭐니해도 마인드컨트롤이 최고!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자. 슬럼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칭찬해 주자. 지금까지 얼마나 업무를 성실하게 잘 해왔는지, 내 업무로 인해 우리 팀과 회사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 돌아본다. 수첩을 꺼내어 하나하나 리스트를 만들어 적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눈에 확연히 보이는 성과 목록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

2.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취미생활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 업무에 소홀해진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 최근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흐름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삶의 만족도는 회사 업무만 잘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자. 취미 생활을 통해 행복한 에너지를 충전한다면 직장에서도 슬럼프를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충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

평소에 활기찬 액티비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색다른 취미생활을 시작한다거나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는 편이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와 반대인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고, 요가를 하며 찬찬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지친 몸과 마음을 잘 달래줄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도 좋겠다.



4. 상사나 선배, 친구를 만나 상담하기

마음이 허하고 지칠 땐 사람이 약이다. 특히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관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슬럼프에 빠졌다면 오히려 더욱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주위에 아직 내 편을 들어줄 친구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미주알고주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누군가를 만나 정답을 구한다기 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을 스스로 찾기 위한 과정이다.



5. 업무에 더욱 몰두하기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다. 더위를 더 뜨거운 열기로 극복한다는 뜻이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 받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만약 업무가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고 슬럼프에 빠졌다면 오히려 업무를 더욱 열심히 해서 높은 성과를 올려보자. 사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방법을 더욱 열심히 고민해 보자. 누가 보아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슬럼프는 어느새 저 멀리 사라져 있을 테니.

우리의 신나는 여름이야기

통영부터 거제까지 남해여행을 떠나다!

사진/글 제공: SIMPAC 프레스BU 품질경영팀 최진아 사원

봄호 워라밸 프로젝트에서는 일과 삶 사이를 여행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심팩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여름호에서는 '여름휴가' 특집으로 바쁘게 달려왔던 상반기를 끝으로 '여행'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꿀 같은 휴가를 보낸 심팩인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워라밸 프로젝트, 심팩 인의 여름휴가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 설렘 가득 안고 통영으로 출발!

저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국내여행을 선호하는 편으로 이번 여름휴가는 그중에서도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통영과 거제를 선택했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햇빛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통해 열심히 광합성하며 부족했던 비타민 D를 과다 보충하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인천터미널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갔는데 장장 4시간 반에 걸쳐 통영에 도착하였습니다. 긴 시간이 었지만 이 또한 여행의 시작이라는 설렘을 가득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 과연 2박 3일 동안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여름만의 매력을 느끼며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 상대로 여행 동안에 너무 더운 날씨로 아쉬움이 남아서 기회가 된다면 선선한 날씨에 다시 이곳을 찾아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안에서 통영을 만끽하다

첫째 날,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서피랑 마을에 현지인에게도 유명하다는 떡볶이집을 찾아갔습니다. 테이블이 딱 세 개뿐인 작고 소박한 가게였지만 즉석에서 튀겨주시는 닭튀김과 떡볶이의 조합은 환상이었습니다. 단 돈 오천 원에 추억의 맛을느끼고 싶으시다면 '서피랑 떡복기집'을 추천합니다.

배를 채우고 소회를 시키기 위해 근처에 있는 이순신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공 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공원에서 보이는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한 임란의 최대 승첩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 서 그때와는 또 다른 온도를 느끼고 있음에 감사하며 멋진 풍경을 뒤로 사진을 찍고 다음 코스로 향하였습니다.

더위 속에서 지친 몸을 위해 잠깐의 휴식을 취하려 관광객 인기코스 루지를 타러 갔습니다. 고된 일정 속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날씨가 더웠는데도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내는 덕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지막 일정을 위해 체력을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달아공원으로 일몰시간을 맞춰 가면 저처럼 손오공을 빙의해 원기옥을 손에 넣은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뚜벅이 가 아니라면 돌아오는 길에 미스티크 루프탑 카페에 들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해가 지는 동안에도 멋진 하늘을 감상할 수 있지만 해가 지고 붉은빛이 살짝 감도는 밤하 늘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면 또 다른 매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날, 통영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곧바로 거제로 넘어가서 미리 예약해두었던 숙소로 항하였습니다. 여행 전부터 거제 숙소에 대한 기대를 한껏 하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친구와 저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거제에 오면 또이곳에 머무르자 할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항구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배를 타러 나가는 데에도 편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치킨과 맥주 한잔하기 좋은 분위기 있는 옥상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어 여성분들과 커플들의 취향을 저격할 장소로 제격이니 거제로 여행을 간다면 키친 게스트하우스에 하룻밤 묵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인근에 위치한 구조라항에 가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외도 유람선 예약 시 해금강 코스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2시간 20분 동안의 알찬 일정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바닷물이 일렁이고, 그 바닷물이 해금강 절벽을 때리며 새하얀 파도를 만들어 부서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외도 보타니아에 들렸습니다. 선인장 가든, 물의 정원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정원을 구경하며 눈을 즐겁게 해준 여행이 되었답니다. 예쁜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여러분들도 인생삿을 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유럽에 와있는 듯한 착각이 들정도로 아름다웠던 외도 보타니아 구경을 마치며 둘째 날의 일정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특별한 일정 없이 중앙전통시장에 들러 통영에 오면 꼭먹어봐야 한다는 꿀빵을 양손에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더웠던 날씨지만, 통영과 거제에서 즐거웠던 시간으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린 저희의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일상에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잘 다녀온 여행은 휴식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방향까지 바꿔줍니다. 일에 있어서도
동기부여를 하고 의욕을 향상시켜준달까요?
심팩인 여러분은 일과 삶 사이를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자신만의 워라밸을 찾아가는 심팩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현명한 워라밸을 함께 시작해요!



히순신공원

통영의 새로운 명소로서 성웅 이순신 장군의 청동으로 만든, 높이 17.3m의 동상이 한산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바다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북쪽은 망일봉이, 남으로는 호수 같은 총영항과 한산대첩의 학인진이 펼쳐진 바다의 풍광이 아름답다. 확 트인 바다와 푸른 숲속 사이로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좋다면 이순신공원으로 와보자.

○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길 205(정량동)☎ 055-642-4737 (연중무휴)

루지 체험장

세계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어드벤처 활동 중 하나인 루지를 통영에서도 즐기실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point! 미륵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통영 케이블카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며, 짜릿한 활강 주행을 하면서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와 주변의 섬들까지도 내려다보이는 멋진 풍경을 함께 즐기실 수 있다.

외도 보타니야

외도 보타니아는 거제도에서 약 4km 떨어진 섬 외도에 조성된 해상공원이다. 지중해의 어느 한 해변을 옮겨 놓은 듯한 이국적인 모습의 건물과 조경으로 가꾸어져 있는 이곳은 '식물낙원(botanic +utopia)'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희귀 아열대 식물 740여 종과 리스하우스 등 7동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곳이다.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외도길 17 외도해상농원② 하절기 8:00 ~ 19:00 동절기 8:30 ~ 17:00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경영지원PART 현창우 과장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민혜림 사원

To, 항상 고마운 우리 봉봉에게

우리가 함께 한 6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버렸지만 아직도 오빠랑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 긴 시간들을 후회 없이 행복한 기억들로만 남게 해줘서 너무고마워. 항상 오빠가 나에게 해주는 것보다 덜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 살면서 갚도록 할게♥

그리고 즐거웠던 신혼생활 끝에 축복으로 다가와 준 우리 티니가 생겨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해. 티니가 생기고 나서 오빠는 집안일 담당이 되어 조금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겠 지만 조금만 더 수고해줘^^ 이 기쁨을 조금만 더 누리도록 할게~ 다 우리 티니를 위해서야!

내년에는 티니와 함께 세 식구가 완전체가 되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우리가 기대되고 너무 설렌다. 항상 최고의 여자로, 아내로, 이젠 예비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부부! 오빠가 하는 일을 응원하고, 배려하며 옆에서 내조 잘하는 최고의 아내가 될게!





To.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쁨이 혜림에게

"안녕하세요 민혜림입니다"라고 수줍게 인사 다니던 어여쁜 20대 신입사원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한 가정의 아내로, 한 아이의 예비엄마로, 철없던 사내를 예비아빠로 만 들어준 당신에게 새삼 감사의 편지를 써.

스릴도 재미도 있었지만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만들기도 했던 비밀스러운 사내연애.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서로의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도 좋지 않은 순간도 잘 버티게 해줄 수 있지 않았나 싶어.

매일같이 당신과 아침을 맞이하고, 같이 당신과 출근하고, 같이 당신과 일하고, 같이 당신과 퇴근하고,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같이 당신과 잠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행복하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행복한 순간들의 시점들이 많은 거라고 하는데 항상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너무 즐겁다.

물론 항상 좋지만은 않았겠지만 안 좋은 순간들은 술과 함께 보내버렸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나. (결혼생활 중에 1/3은 기억이 잘 안나는 거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연인이 되어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결혼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귀한 선물로 티니가 우리에게 와주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뻐.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켜준 당신에게 너무 감사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다짐했을 때처럼 낯설고 어렵겠지만 남은 여정도 예쁜마음으로 잘 헤쳐 나갈 것이라 믿어.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평생이 마음 영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할게.

떨림과 설렘으로 시작된 당신과의 삶은 정말 축복이야.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혜림아.

언젠가 혜림과 티니와 함께 소주 한잔할 날을 기대하는 아직도 철없는 남편이



편지왔습니다 SIMPAC인이 전하는 마음

SIMPAC 메탈BU 서울사무소 선·후배님들께

포항에서 일 년에 한두 번 서울시무소로 출장을 가게 되면 모두들 반갑게 맞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도 있고,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셔서 함께 했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도 있지만, 하나같이 반겨주시고 유선상으로 업무를 부탁해도 기꺼이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극성이었던 지난날, 서울시무소로 출장을 갔더니 포항의 더위와는 또 다른 더위에 고생이 많은 선·후배님들을 보고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빌딩 숲에 둘러싸여 바람 한 점 없고, 아스팔트의 복사열과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 그리고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의 복잡함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 모습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옆에 있으면 뭐라도 챙겨드릴 텐데..'라는 마음에 고민을 하다 말복을 맞아 시원한 수박주스를 보냅니다. 수박을 보내자니 깨질까 걱정되고, 후배에게 부탁하자니 땀 흘릴 후배 걱정에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TV에 시원한 수박주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얼른 주문하여 복날에 맞춰 보내드립니다.

갈증을 다 가시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른한 오후 삼삼오오 모여 시원하게 원샷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남쪽 땅, 포항에서

SIMPAC 메탈BU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2팀 전준호 대리 드림





SIMPAC 메탈BU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2팀 전준호 대리님께

대리님, 안녕하세요. 엄동현 사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 나른한 시간에 만난 오아시스 같은 수박주스는 잘 마셨습니다. 포항에서도 다른 직원분들 챙겨드리기도 바쁘실 텐데 서울사무소까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포항 출장이 많지 않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항상 반가워하시고 오래 호흡을 맞춘 팀원처럼 대해주셔서 오랜만에 보아도 서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쁘신 와중에 서울사무소로 출장 오실 때면 이야기도 두런두런하며 같이 소주 한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포항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시면 제가 꼭 맛있는 식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담아,

SIMPAC 메탈BU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2팀 엄동현 사원 드림



평소 고마움을 전하고 싶거나 칭찬해 주고 싶었던 직장 동료 혹은 선배에게 편지를 작성해보세요. 사보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신청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작성하시는 분께 선물지원비를 제공해드립니다!

36 SIMPAC STORY 37 2018 SUMMER



사진으로 말해요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을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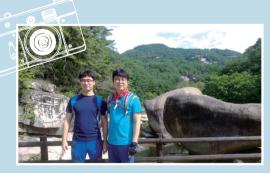


SIMPAC 프레스BU 전기설계팀 윤원미 사원

스쿠터로 즐긴 올 여름휴가를 소개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 강원도로 피서를 떠났습니다. 낮에는 시장, 유명한 맛집, 예쁜 카페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는 밤, 여전히 덥지만 에어컨에 질린 저와 친구들은 전동스쿠터를 대여했습니다. 자전거만 탈 수 있으면 쉽게 운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행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경포호를 쭉 돌며 야경을 감상하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달리자 가슴이 뻥 뚫렸고 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릉으로 놀러 가시는 심팩인 분들이 있다면 전동스쿠터를 타고 시원하게 드라이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SIMPAC 메탈BU 당진생산본부 생산지원팀 이준기 과장 산속에서 힐링을 통한 여름 극복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는 저만의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수풀이 우거진 산으로 떠나는 방법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땀도 많이 나고 힘이 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쾌감과 시원한 바람이 모든 것을 해갈해줍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신민규 사원 더위, 피하지 말고 즐겨라!

이번 여름에는 땀을 닦는 것이 아니라 땀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싸이 흠뻑쇼에 다녀왔습니다. 입장부터 쏟아지는 물줄기 속에 있으니 이게 땀인지 물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신나는 노래에 맞추어 뛰노니 이 순간이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온몸이 찝찝할 때는 싸이 흠뻑쇼에 가서 오히려 폭염을 즐기는 것이 어떨까요?





SIMPAC 메탈BU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2팀 선광규 과장 사람 많은 워타파크 대신, 집터파크로 떠나자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속만큼 그리운 게 없죠. 사람 많은 워터파크 대신, 할아버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시골 집터파크로 떠나는 피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해수욕장 한번 가자고 몇 번을 졸라야 겨우 한번 데리고 가주셨는데, 손주들 와서 놀아야 한다고 여름 마다 마당에 손수 집터파크를 설치해주시는 자상한 할아버지입니다. 덕분에 아빠는 주말에도 시골에서 풀 베고, 창고 정리하고 땀을 흘린단다. 그래도 괜찮아, 사실 비밀인데 "너희들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풀 베는 게 덜 힘들어..."

> ⊙ 2018년 SIMPAC STORY '시진으로 말해요' 코너에서 SIMPAC인들의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매 호 해당 주제에 맞춰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CONGRATULATIONS!

2018년 8월 3일 SIMPAC 프레스BU 자동화팀 김규탁 대리 아들 김찬유 군







찬유야!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라 처음에 엄마 아빠가 너무 당황했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주니 걱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구나~ 엄마 아빠가 책임감이 그만큼 늘었지만, 네가 자라서 독립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테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지막으로 다둥이 아빠 만들어줘서 국가에 이바지하게 해 준 건 덤으로 고맙다^^



사보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